

선거구 획정

2026년 4월 23일 [미디어 문의](#)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모든 알버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선거구 2곳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알버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의회 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대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법(Bill 32, the Electoral Boundaries Commission Amendment Act, 2026)」은
알버타의 선거구 수를 현재 89개에서 9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 의회는 다수 보고서 부록에 포함된 권고 5를 검토·반영하기 위해 입법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 자문단을 두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독립 자문단은 알버타의 선거구를 91개의 제안 선거구로 분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권고안들을 통합 및 조정할
예정입니다.

"선거구의 공정한 배분은 민주주의 프로세스의 핵심이며, 우리는 모든 알버타 주민이
의회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결의안의 방향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키 아메리(Mickey Amery) 법무부 장관

독립 자문단의 활동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 따라 보장된 알버타 선거구 내 효과적인 대의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디어 문의

[헤더 젠킨스\(Heather Jenkins\)](#)

780-245-0421

법무부 대변인